

# 주 일 예 배 순 서

2019년 6월23일 오전 11시

사회 김기무 집사

*송영	13장(Opening Song)
*신앙고백	사도신경(Apostles' Creed)
경배와 찬양	다같이(Praise & Worship)
합심기도	다같이(United Corporate Prayer)
대표기도	김창희 집사(Lead Prayer)
교회소식	사회자(Announcements)
봉헌	봉헌송 489장(Tithes & Offering)
봉헌기도	사회자(Offertory Prayer)
성경봉독	시편 42편 1-5절 (Psalm 42:1-5)
설교	인생의 시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 송인철 목사 Rev. Aaron Song
*송영	사랑의 종소리(Closing Song)
*축도	송인철 목사(Benediction)

## 주일에 섬기는 분들 People Who Serve on Sundays

	6월(June)	7월(July)
헌 금 위 원	함진옥 집사 노은실 집사	허지영 집사 김창희 집사
안 내 위 원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대 표 기 도	이번주: 김창희 집사	다음주: 백종희 권사
이 번 주 친 교	준비: 허지영 집사	기도: 한신옥 전도사
다 음 주 친 교	준비: 김미란 집사 황동필 집사	기도: 오병국 집사
이 번 주 헌 화	헌화: 데이빗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다 음 주 헌 화	헌화: 마이클 마네아	꽃꽂이: 허지영 집사

라도 내면에서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끊어 넘치는 법이다. 사회적이거나 경험적인 보상이 전혀 없어도 영적으로 메달랐다 싶으면 당장 기도부터 시작한다.

내면생활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주의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개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 예배에도 참석해야 하며, 고요히 묵상하는 동시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 핵심은 공사(공적, 사적) 양면에 걸친 기도다.

가까운 친구이자 목회자인 잭 밀러(Jack Miller)는 기도를 잘 들어 보기만 해도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말 주님과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지 단박에 드러나거든.” 내가 보인 일차적인 반응은 그 친구 근처에서는 절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몇 년을 두고 잭의 가설을 검증했다.

그의 말처럼 사사로운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가꾸지 않아도 공적으로는 현란하며 신학적으로 견실하고 열성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는 상황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특징만은 흉내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은밀히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는 나란히 깊이를 더해 가게 마련이다.

##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

위대하고 대단하면서도 쉽고 간단한 일이란 건 어디에도 없다. 사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에 속한다. 하지만 기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힘이 될 수도 있다. 기도라는 이슈를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 중이라면 주위를 돌아보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도를 다룬 19세기 미국 신학자 오스틴 펠프스의 책 <응답 받는 기도 원리>는 욕기 23장3절을 인용한 것으로 첫 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를 연다.

**우리교회 핵심 가치 및 사역 Core Values & Ministries**

아름다운교회는 예배, 선교, 양육, 섬김의 공동체로서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We exist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봉하 순회목사: 한순진 안수집사: 함진욱
- 반 주: 권새미 김창희 찬양팀장: 김정민
- 경배찬양: 김정민 김기무 김미란 허지영 김창희  
노은실 오병국 양해성 고영민
- 주일학교: 한신옥 이조앤 백종희 김다인 이보람
- 학 생 부: 한신옥 김다훈 청 년 부: 오병국
- 믿음목장: 김기무 김창희 소망목장: 함진욱 이봉하
- 사랑목장: 김미란 노은실 은혜목장: 고광원 고경희 화평목장: 백종희
- 비전목장: 이봉하 이조앤 EM 목장: 마네아 드림목장: 한신옥 이보람
- 난타사역: 한신옥 음향영상: 오병국 양해성 김정민 고 은 김다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714)719-9338

**2019년 6월 23일**

금년도 표어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 아름다운교회

ANAHEIM BEAUTIFU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 : 이 봉 하 목사 Stephen Lee, Pastor

## 기 도

팀 켈러

기도는 세상을 거스른다.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 지켜보는 눈길이 전혀 없을 때, 이러저러한 상념에 잠기도록 몰아가는 압박 요인이 전혀 없는 순간에 무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살피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가?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한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가? 솔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자분해 보라.

긍정적이고 쾌활한 인물로 비쳐지길 바라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분의 성품을 항상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사랑 하는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 모르지만, 삶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과연 그걸 진심으로 볼 수 있을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겸비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과 실상은 서로 합치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5-6 절을 비롯해 몇 가지 사전 아이디어를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데서 이뤄지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야말로 영적 상태를 즉집게처럼 진단해 내는 영적 시험지다. 흔히들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형편이 어려워져 걱정이 많을 때 기도한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외부의 압박이 전혀 없다 하

### 1 기원 Greetings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2 이번 주 성구 Bible Memory Verse

이번 주 성구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편42:1)입니다.

### 3 감사 Thanksgiving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 해주시는 송인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4 교역자 소식 Ministerial News

고국 방문 일정을 위해 출타 중에 계신 이봉하 목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KTEE 소식 KTEE News

한순진 목사님께서 이달 말까지 대구, 서울, 서귀포 등지에서 진행되는 TEE 세미나 사역 일정을 위해 출국 중에 계십니다. 모든 사역 일정에 주님의 기쁨 부으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주일 강단 사역 Pulpit Ministry

다음 주일(6월 30일)에는 웨스트 코비나 지역에 소재한 카리스 교회를 섬기시는 이원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 해주십니다.

### 7 캘린더 Calendar

- OC 원로 중창단, 합주단 정기 모임(본교회,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KTEE 세미나 일정(6/15 경북대구교수선교회 특강, 6/17 서울 신학대학원 세미나, 6/19-20 기성선교사 훈련원 세미나, 6/24-25 서귀포 반석교회 세미나, 6/27-28 지구촌 교회 세미나)
-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
- 한인 나사렛 청소년 인카운터 및 교역자 자녀 수련회(7월10-13일)
- 애너하임 연회 어린이 캠프(7월15-19일)
- 애너하임 연회 십대 학생 캠프(7월28-31일)

### 8 기도 섬김이 Leaders in Prayer

예배기도 6/23 김창희 집사 6/30 백종희 권사 7/07 김기무 집사  
친교기도 6/23 한신옥 전도사 6/30 오병국 집사 7/07 신혜숙 권사

### 9 친교 섬김이 Fellowship Meal Prep

6/23 허지영 집사 6/30 김미란 집사 황동필 집사 7/07 고경희 권사  
7/14 남병숙 권사 고 은 집사 7/21 감가등 성도 김영순 성도

# 우리교회 이모저모 Prayers & Etc.

\* 지난주일 헌금 명단은 7월7일에 게재됩니다.

## 헌금드릴 때 어떤 마음 가짐?

크리스천 포털사이트 <갯피플 닷컴>이 "나는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모습이였다"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은(네티즌 1,392 명 중 24.2% 589명)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렸지만 습관 적이었다"였다.

이어 "십일조, 구제, 선교헌금 등 가능한 다 하려고 노력한다"가 19.4%, "내야 하는 헌금 때문에 갈등한 적이 있다"가 15.1%, "지갑에 큰 돈 밖에 없을 땐 망설여진다"가 15% 순이었다.

네티즌들은 또 "주님의 것이므로 아깝지 않아야 하는데,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 "만원짜리 티셔츠는 쉽게 구입하면서 헌금으로 만원 내려 할 때는 망설여져 부끄러웠다"는 글을 남겨 헌금을 드릴 때 계산하고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댓글을 많이 남겼다. 이밖에 십일조를 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의문점을 드러내거나, 헌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많은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헌금생활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목회자들의 자문과 교회의 교육이 필요한 대목이다.

## 기도 제목

- 1 온 교우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한해가 되도록
- 2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3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해가 되도록
- 4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부흥을 위하여
- 5 한순진 목사님의 KTEE사역을 위하여
- 6 162개 세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나사렛 선교사들과 다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 7 이은덕 선교사(필리핀), 이흥기 선교사(멕시코), 전예인 목사(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 8 미주 한인나사렛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9 조국과 미국의 안녕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 집회 안내

중보기도회 주일 오전 10시 2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생부 주일예배 오전 11시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15분  
 경배 찬양 준비 오후 1시 15분  
 수요 TEE 성경공부 오후 7시30분  
 새벽 화-목 오전6시 토 오전 7시  
 금요 찬양 집회 금 오후 7시 30분

TEE는 신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성경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사역에 눈을 뜨게 합니다.

## Crumbs for Life

### Grace Avoidance

It describes a person who puts on a face to make a good impression.

As part of his Fulbright fellowship, my friend Terry Muck studied legalism among Buddhist monks in Sri Lanka. The monks had all agreed to follow the 212 rules of the Buddha, many of which were now outdated and impractical. Terry wondered how the monks could reconcile their need to live in modern world with their adherence to an ancient legalistic code. For example, the Buddha had specified that no monk should carry money, and yet Terry regularly observed monks paying 212fares on city buses. "Do you follow the rules?" he asked the. "Yes." "Do you handle money?" "Yes." "Are you aware of the rule against money?" "Yes." "Do you follow all the rules?" "Yes."

The rules also forbade eating after noon, for the monks lived on handouts and the Buddha did not want his followers to burden housewives.

- Philip Yancy -